

윤봉우 현역 유지...장소연 미계약

프로배구 FA시장 종료

곽동혁·김철홍·안준찬 등도 재계약
한유미 1년 연장...백목화·이연주 은퇴

프로배구 선수들에게 5월31일은 문이 닫히는 날이다. 프리에이전트(FA) 계약 마지막 날이라 이날까지 계약을 못하면 사실상 한 시즌을 쉬어야 된다. 선수에게는 막대한 골목이겠지만 구단도 골치가 아프다. 선수가 여기까지 올 정도면 갈 데까지 갈 정도로 결연하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FA 선수들의 원 소속구단이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3가지다.

첫째 구단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대개 은퇴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재계약을 해주는 것이다. 구단이 매물처가 하지 못하고 결국 선수가 원하는 바를 들어 준 쪽이다. 셋째 미계약 상태로 그냥 두는 것이다. 같은 미계약 신분이라도 구단이 코치직이나 프런트 등 선수의 장래를 보장해주는 은퇴와는 상황이 다르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31일 남녀 FA 3차 선수계약 결과를 발표했다. 남 자부에서 5명의 선수 중 4명이 계약을 했다. 남은 1명인 현대캐피탈 임동규도 코치직을 제의한 구단의 뜻을 받아들였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베테랑 센터 윤봉우(34)는 현대캐피탈과 연봉 1억 3000만원에 재계약을 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코치직을 제안했으나 윤봉우가 배구를 더 하고 싶어 했다. 우리 팀에서 14년간 뛰며 보여 준 공로를 평가해 재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했다. 배구계에서 나오는 윤봉우의 사인 후 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 현대캐피탈은 "사인한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삼성화재는 리베로 곽동혁(33)과 1억2000만원, 대한항공은 센터 김철홍(35)과 8000만원, 우리카드는 레프트 안준찬(30)과 1억1000만원에 재계약했다.

반면 여자부는 5명의 대상자 중 3명이 미계약자로 남았다. 은퇴를 고민했던 현대건설 한유미(34)는 구단과 양철호 감독의 뜻을 받아들여 현역을 1년 연장(연봉 8000만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도로공사 리베로 오지영(28)도 연봉 6000만원에 현역생활을 이어나간다.

반면 최고령선수 장소연(42)은 끝까지 도로공사의 은퇴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계약 신분으로 남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구단은 어찌 상태가 쉽지 않다고 봤지만 선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장소연은 미계약 선수이지 은퇴가 아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FA 센터 배유나를 영입하며 장소연의 쓰임새가 마땅치 않았다. 장소연은 미계약 신분으로 뒤사인 후 트레이드 가능성도 차단했다.

인삼공사에서 FA가 된 백목화(27)와 이연주(26)는 나란히 은퇴를 결정했다. 배구계 관계자는 "원 소속구단과 협상이 결렬된 뒤 FA 시장에 나왔음에도 어느 구단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삼공사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선수들의 의욕도 꺾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삼공사에서 서남원 선임감독 체제에서 체질 개선의 방향성을 더욱 강화할 상황에 직면했다. 김명준 기자 galzby@donga.com



시애틀 마이너리그가 31일(한국시간) 세이프로필드에서 열린 샌디에이고와 홈경기에서 7번 1루수로 선발 출장해 6-으로 앞선 8회말 1사 1·3루서 셋기 홈런을 날리고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이대호의 시즌 7호 홈런에 힘입어 팀은 9-2로 승리했다. 시애틀(미국 워싱턴주) | AP뉴시스

‘반쪽 출전’ 이대호 벌써 7호 아치

SD 우완볼펜 마우어 156km 포심 공략
들쭉날쭉 출전불구 5월에만 5개 홈런

역시 현역 대한민국 4번 타자 이대호(34)다. 들쭉날쭉한 출장 속에서도 시애틀 마이너리그에서 벌써 시즌 7호 홈런을 날렸다.

KBO리그에서 리그 최고 타자에 오른 이대호는 정교한 제구력을 자랑하는 일본프로야구에 이어 메이저리그 투수를 널리 알고 있다.

이대호는 31일(한국시간) 세이프로필드에서 열린 샌디에이고와 홈경기에서 7번 1루수로 선발 출장했다. 화려한 홈런은 6-2로 앞선 8회말 터졌다. 1사 1·3루 타석에 선 이대호는 우완 볼펜 투수 브랜든 마우어의 2구째 시속 156km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 좌중간 3점 홈런을 때렸다.

이대호는 최근 2경기 연속 교체 출전했다. 시애틀 스포츠 서비스 감독은 이대



호의 꾸준한 활약 속에도 플래툰 시스템을 큰 틀에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대호는 컨디션 조절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우완 강속구 투수를 상대로 비거리 127m 3점 홈런을 때리며 자신의 능력을 맘껏 발휘했다. 21일 신시내티지 이후 10일 만에 터진 홈런이다. 이대호는 확실한 선발 주전라인업이 아니지만 시애틀 전제에서 5번째로 많은 홈런을 기록하고 있다.

이대호는 이날 3점 홈런과 함께 안타도 생산하며 시즌 5번째 멀티히트(한

경기 2개 이상 안타)도 기록했다. 2회말 2사 첫 타석에서 2루 땅볼로 물러났고, 5회 무사 1·2루에서 번타에 그쳤다.

이대호는 팀이 역전에 성공해 4-2로 앞서고 있던 7회말 선두 타자로 등장해 샌디에이고 선발 앤드류 캐시너의 7구 시속 150km 투심 패스트볼을 공략해 중전 안타로 첫 출루했다. 8회말 3점 홈런을 터트려 4타수 2안타로 경기를 마치며 시즌 타율 0.267(75타수 20안타)를 기록했다. 시애틀은 이대호의 셋기 3점 홈런에 힘입어 9-3으로 이겼다. 미국 유력 매체 CBS스포츠는 "이대호는 매일 출전하고 있지 않지만 5월에만 5개의 홈런과 13개의 타점을 올렸"으며 높이 평가했다.

한편 강정호는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말린스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 원정경기에서 4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한 가운데 5타수 1안타 1타점 1삼진을 기록했다. 28일 텍사스 레인저스전 이후 2경기만에 안타와 타점을 추가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코리안 빅리거 경기 결과
31일(한국시간)

이대호	시애틀
샌디에이고전(홈)	
▶ 선발출전(7번 1루수)	
▶ 4타수 2안타(1홈런) 3타점 1득점	
▶ 시즌 타율 0.267(75타수 20안타)	
▶ 팀 9-3 승	
강정호	피츠버그
마이애미전(원정)	
▶ 선발출전(4번 3루수)	
▶ 5타수 1안타 1타점 1삼진	
▶ 시즌 타율 0.279(61타수 17안타)	
▶ 팀 10-0 승	
김현수	볼티모어
보스턴전(홈)	
▶ 선발출전(2번 좌익수)	
▶ 3타수 무안타 1볼넷 1삼진	
▶ 시즌 타율 0.360(50타수 18안타)	
▶ 팀 2-7 패배	

‘역전의 명수’ 캔자스시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손진영의 굿모닝 MLB

5월 29일, 9회 1-7 상황에서 8-7 역전을 시전 28승 중 35.7%가 뒤집기소

지난해 캔자스시티 로열스가 무려 30년 만에 월드시리즈 챔피언에 오르자 스포츠전문 매체 ESPN은 'Royals crowned kings of improbability and MLB'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과 메이저리그의 영광을 모두 썼다는 뜻으로, 로열스가 짜릿한 역전극을 통해 정상에 등극했음을 알렸다.

29일(한국시간) 로열스의 홈구장 카프먼스타디움에서는 또 다시 절대 일어나지 않을 법한 역전극이 펼쳐졌다. 1-7로 뒤져 패색이 짙은 9회말 로열스는 거짓말처럼 7점을 뽑아내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8-7로 제압했다. 2010년 이후 6점 차로 뒤진 상황에서 9회에 돌입한 것은 2815년 있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은 이날 경기까지 5번밖에 없었다. 확률상 0.0017%의 기적적인 것이다.

●이기가 없으면 잊음으로 상대팀 화이트삭스의 로빈 벤추라 감독의 적시타와 맷 케인의 야수선택, 호스

머의 적시 2루타로 1점 차가 된 후에야 로버트슨은 벤추라 감독에게 공을 넘기고 경기에서 물러났다. 로열스 전력의 핵심 살바도르 페레즈가 9회초 부상을 입어 대신 타석에 들어선 드루 부데라의 메이저리그 통산 타율은 0.185. 올 시즌에도 0.211에 불과한 부데라는 상대의 바뀐 투수 토미 케인리의 시속 99마일(159km)짜리 강속구를 잡아당겨 좌중간을 가르는 동점 적시타를 때렸다. 이어 폭투로 부데라가 3루에 진출하자 벤추라 감독은 고의의 4구 2개를 지시했다. 2사 만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타자는 생애 두 번째 메이저리그 경기 출전인 브렛 아이브너. 풀카운트에서 아이브너는 98마일(158km)짜리 직구를 밀어 쳐 1루수 클러브를 스치고 빠져 나가는 우전 안타를 때리며 대역전극에 종지부를 찍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4월 11일 미네소타 트윈스전에서 로열스는 1-3으로 리드당한 채 9회말 공격에 돌입했지만 2점을 만회해 연장에 돌입한 후 연장 10회말 4-3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특히 끝내기 점수는 안타를 기록하지 않고 얻은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선두타자 크리스티안 콜론이 상대

투수 트레버 메이로부터 볼넷을 얻어 진루하자 네드 요스트 감독은 테렌스 고어를 대주자로 기용했다. 현역선수 중 가장 빠르다는 평을 받고 있는 고어는 메이 1루 견제가 빛나자 총알같이 내달려 3루까지 진출했다. 2사 1·3루로 바뀐 상황에서 로렌조 케인을 상대로 볼카운트 1B-2S에서 던진 메이와 브레이킹볼이 포수 존 라이언 머피의 가슴에 맞고 옆으로 튀기자 고어가 홈으로 질주해 결승득점을 뽑았다. 경기 후 요스트 감독은 "많은 사람들이 왜 고어를 로스터에 넣었냐고 물어왔는데, 오늘 경기가 바로 답이 됐다"며 미소를 지었다.

5월4일에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전도 로열스 역전승의 백미 중 하나였다. 3-6으로 뒤진 8회말 1사 1·3루에서 에릭 호스머의 내야땅볼로 1점을 추가한 로열스는 마지막 공격에서 마이크 무스타카스의 2타점 동점 적시타와 로렌조 케인의 끝내기 중전 적시타가 이어져 7-6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28일에도 화이트삭스에 2-4로 끌려가던 8회에 3점을 뽑아내 5-4로 역전승했다. 올 시즌 로열스가 거둔 역전승은 10차례나 된다. 지금까지 거둔 28승 중 무려 35.7%를 역전승으로 장식한 것이다.



캔자스시티는 '역전의 명수'로 통한다. 29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홈경기에서 1-7로 뒤진 9회말 7득점하며 8-7 승리를 거둔 것이 한 단면이다. 캔자스시티는 지난해 포스트시즌에서도 11승 중 7차례 역전승을 거뒀다. 캔자스시티(미 미주리주) | AP뉴시스

●플레이오프 역사를 새로 썼다

2014년 오렌란에 플레이오프에 나선 로열스는 오렌랜드 어슬레틱스와 외야인 드카드 결정전에서 한판 대결을 펼쳤다. 8회까지 3-7로 리드를 당한 로열스는 8회에 3점, 9회에 1점을 뽑아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연장 12회초 어슬레틱스가 다시 1점차로 앞서 갔지만 이어진 말 공격에서 2점을 뽑아내며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이 경기에서 로열스는 무려 7개의 도루를 성공시켜 대역전극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듬해에도 로열스의 기적은 계속됐다.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월드시리즈 3차전

나 역전승을 거두 3승2패로 시리즈를 마감했다. 특히 1승2패로 탈락의 위기에 몰린 4차전은 압권이었다. 2-5로 리드를 당한 8회초에만 대거 5점을 얻은 후 9회에 2점을 보태 9-6으로 승리를 거뒀다.

여세를 몰아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4승 2패로 제압하고 월드시리즈에 오른 뒤 1차전, 2차전, 4차전을 역전승으로 따내며 4승1패로 뉴욕 메츠를 제압하고 감독의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포스트시즌에서 따낸 11승 중 역전승은 무려 7차례였다. 63.6%에 달한 역전 드라마로 일류 MVP 우승이었다. MBC스포츠플러스 메이저리그 해설위원